충장로 K-POP 광주 아이돌거리로 만든다

BTS 제이홉·빅뱅 승리 등 핸드·풋 프린팅 전시 핫 플레이스
전남방직·일신방직 건축물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으로
광주시 품격있는 문화도시 실현 4대 목표·10대 과제 추진

광주시가 광주의 대표 중심가인 충장로 일원을 K-POP 광주 아이돌거리로 조성한다. 광주 출신 아이돌가수인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동방신기 유노윤호, 미스에이 수지, 빅뱅 승리 등의 핸드·풋 프린팅을 전시해 전국 팬들이 찾는 핫 플레이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구 임동 전남·일신방직 공장 등 근대 건축물을 문화·관광거점 및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전문 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 전용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신축, 면세점과 특급호텔 유치 등에도 나선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품격 있는 문화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민선 7기에서는 문화를 일자리와 상품·브랜드·산업으로 연결시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견인하는 경제 엔진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이 되는 진정한 문화도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문화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지역을 문화적으로 되살리는 문화재생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향유도시 ▲문화가 성장동력이 되는 문화창조도시 ▲스포츠를 통해 문화생활을 누리는 문화스포츠도시 건설을 4대 목표로 설정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중점과제에는 광주문화마을(충장로 K-POP 핫플레이스 등) 조성, 광주문학관·국악관·역사박물관·호남의병 기념관·선사체험학습관 등 문화인프라 구축, 1자치구 1시립도서관 건립, 전문 예술인 창작여건 개선, 시민 문화예술 창작기반 확충, 문화행정 협치, 문화산업 혁신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신축 및 면세점·특급호텔 유치 등 마이스(MICE) 산업 육성, 고유·독특 자원 발굴 및 브랜드화, 2019년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와 레거시산업 추진 등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민선 7기 들어 시는 문화경제부시장 직제를 신설하고, 문화·예술·관광분야의 해묵은 과제인 광주문학관,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상무소각장 내 상무복합커뮤니티타운 건립 등을 해소한 바 있다. 또 문화산업 관련 기반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비 1203억원을 확보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 단체와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도록 광주의 도시 환경을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민자사업 관련 업무 전문성 키워야"

잦은 인사로 담당자 교체
업무 미숙 부작용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이하 민자사업)을 매년 인사로 담당자가 바뀌는 개별 실과에 맡겨놓는 행정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자사업자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금융, 인허가 등 각계 전문가를 동원해 협상력을 높이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시의 시스템은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것이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와의 변경협약,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등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필수적인 정책·사업에 대한 협상 및 검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광주시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와 변경협약으로 인해 오히려 최근 3년간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면서 협상 실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재정지원금이 오히려 32억여원 증가하는 등 2016년부터 3년간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면서 19억여원이 늘었다. 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송 과정에서 미지급 재정지원금 851억원을 일시에 맥쿼리 자회사인 (주)광주순환도로투자에 지급하면서 법인세가 112억원으로 급증, 애초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의 법인세를 시가 부담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다 협약 변경의 귀책 사유가 맥쿼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발생한 거액의 법인세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또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문제가 쟁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미지급금에 따른 법인세를 다루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민선 6기 시는 1014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며 맥쿼리에 1·2심을 승소하고도 법인세(추정치 345억원)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또, 신규민간투자금을 2341억5000만원으로 인정해 9.8%의 수익률을 보장해줬으며, 합의금 형태의 재정지원대체자금 369억원을 건네기로 했다.

당시 민선 6기에서 진행된 맥쿼리와의 협상은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단이 있었지만, 맥쿼리 측 구조조정 전문가가 참여해 주도했으며, 이후 협상 운영·관리는 도로과의 민자도로계장과 담당 주무관에게 맡겼다. 하지만 이들 담당자들은 인사이동으로 수시로 바뀌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역시 민자사업자 대상 공모, 평가, 협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함에도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2계에 거의 모든 행정절차를 맡겨 문제가 생겼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를 상대로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려는 민간사업자를 상대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업무 파악을 하는데도 몇 개월이 소요되는데 잦은 인사로 매번 바뀌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별도의 민자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도 고도의 협상력을 지닌 민자사업자를 상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설명절 맞아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광주시는 23일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전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4일 이용섭 시장이 말바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홍보하고 장보기를 하며 상인들을 격려한다.

또 광주시 공직자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도 기관별로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을 구매하고 식당에서 식사한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올리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 광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역사·문화·관광을 연계한 맞춤형 특성화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의 헌혈행사 동참 합시다"

23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헌혈행사에 참가한 구청직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 추위와 방학 등으로 헌혈 인원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29일·다음달 12일 중기지원 시책 설명회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2019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29일 오후 2시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첨단·본촌권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2월 12일 오후 2시에는 광주그린카진흥원 1층 강당에서 하남·진곡·평동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광주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올해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정책을 설명하고, 지원 기관별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에게는 42개 관계기관의 350여 개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9 중소기업 지원 사업 매뉴얼 책자'와 '모아보는 2019 중소기업 지원사업 포스터'를 배부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광주시의 지원 시책과 산업자원통상부가 준비한 지역 제조업 혁신 전략 등 정부 정책을 듣고 금융, 기술, 수출판로, 경영 지원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방행정혁신·사회혁신 현장 간담회'

광주시는 정부와 공동주최로 23일 오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지방행정혁신·사회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전진숙 청와대 행정관, 김용찬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지난해 광주시의 주요혁신사례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고, 2부에서는 '지역혁신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광주시, 정부,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날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광주민간공항·무안국제공항 이전 합의 ▲4060 위기 독거남 희망프로젝트 등 6건의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지역혁신 성과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결핍이 혁신의 동력이며, 필요가 발전을 낳듯 어려움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적극적인 대처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며 "현장에 달려가 국민과 함께 아픔 나누는 공감력을 갖춘 동료시민 공무원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혁신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장 교체 등에 따라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혁신추진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사회혁신 등 플랫폼을 통한 시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마을공동체의 마을활동가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지난 한해가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하며 혁신의 체계를 구축했다면 올해는 구축된 혁신체계를 기반으로 시정전반에 혁신이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시정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